

바이오 산실 경기바이오센터 개원

첨단 바이오제약기술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경기바이오센터가 경기도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에서 3월21일 개원했다.

경기바이오센터(대표 한문희)는 신약과 세포치료제, 바이오신소재 등 3개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을 담당한다.

2005년 7월 착공해 부지 33만58㎡(1만평)에 연면적 3만2023㎡(9687평), 지하2층 지상15층으로 796억원이 투입됐다.

1-3층에는 입주기업 및 연구소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53종 97억원에 달하는 공동장비를 갖추었고, 4-6층에는 신약과 바이오신소재 등을 개발하는 경희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 부속연구소, 경기의약연구센터가 입주했다. 7층부터는 동국제약과 안국약품, 영진약품 등 20개 대기업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연구소가 사용하며, 현재 19사가 계약을 마쳤다.

개원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양태홍 경기도의회 의장, 김용서 수원시장, 이상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, 이강추 신약개발연구조합회장 등을 비롯한 바이오·제약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.

<화학저널 2007/03/21>